

익산시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12억원 들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9곳·익산역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

익산시가 부족한 도심지역 주차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16일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12억 원을 투입해 도심 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공모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

는 내용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나 상가 밀집지역의 폐가, 유휴지 등이 대상이다.

지난 6월 공고를 거쳐 전체 9곳, 약 2천800제곱미터 부지가 선정됐으며 이달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82면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조성 후 남은 여유 공간은 소규모 공영이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X 익산역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부주차

장 인근에 임시주차장 20면이 설치된다. 이르면 이달까지 행정절차와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개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기쁨의 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부설 주차장 180면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현

황과 주차 실태를 조사해 개방주차장 운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착수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고 개방주차장 등이 확대되면 도심 주차난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세이베스틸과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산시민을 위한 무료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협의했다.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무료 문화공연 지속 추진키로

세이이문화재단이 군산시민을 위해 무료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이이문화재단, ㈜세이베스틸과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산시민을 위한 무료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세이이문화재단 박의숙 이사장(現 세이네트웍스 및 세이메탈 회장), 세이베스틸 박준두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협약식 이후 공동기획 작품인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이번 음악회는 1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협연으로 시작해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은근, 바리톤 김진추 등이 꾸미는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였으며 2부 국악에는 소리꾼 김준수와 김

희가 밴드 두 번째달의 연주에 맞춰 이별가, 진도아리랑등을 선보이며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세이이문화재단과 군산예술의전당의 공동기획공연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013년에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2015년에는 클래식과 뮤지컬 넘버를 연주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이이문화재단 박의숙 이사장은 "세이이문화재단의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하여 예술을 통해 군산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유자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군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무료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세이이문화재단과 ㈜세이베스틸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공연을 함께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해상풍력 워크숍

유럽 연구개발 동향, 한국의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현황 등 논의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원장이장호)은 한국과 영국 양국 사이의 공식적인 해상풍력 분야 기술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체결된 영국 ORE Catapult사와의 업무협약과 9월에 이루어진 사이먼 스미스(Mr. 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의 군산대학교 방문에 이어 진행됐다. ORE Catapult는 영국 내 해상풍력분야 교육 및 훈련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ORE Catapult사

의 국제공동 R&D 사례 소개, 유럽의 해상풍력 연구개발 동향, 한국의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현황, OPEX 시뮬레이션 기반 해상풍력 O&M 전략수립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 토론에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티에스윈드, ㈜휴먼컴포지트, ㈜에드벤처, ㈜대립C&S, ㈜동방, ㈜도원, ㈜위윈스, 소리종합건설(주) 대한전기협회 등 다수의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은 현재 ORE Catapult사 뿐만 아니라 The Univ. of Hull 등 해상풍력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교와의 업무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장호 원장은 "국내 기술 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유지관리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국제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통신설비 공동 활용 업무협약

익산시는 (주)SK텔레콤, (주)SK브로드밴드와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통신설비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통신관로와 통신주를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정보통신 기초설비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비용 절감과 중복 투자를 방지해 효율적 자원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시 경관개선과 정보통신 선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 1회 무료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는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 절차와 기업가 마인드 함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산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오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 1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군산시 중정길 8-1)에서 개최되며,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단체 누구나 참가가 가

능하다.

강의내용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기업 육성기 과정 △사회적기업 노무·세무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를 위해서는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063-443-5437)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경제는 조직·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 및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

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5개소, 자활기업 10개소, 협동조합 114개소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물품 및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는 기존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실시되며 교육 커리큘럼은 협동조합의 이해,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가을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익산시는 가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오는 18일 종합운동장(구 팔봉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의 일환이다.

시는 이날 감나무 1300주, 대추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앵두나무·석류나무·보리수나무 각 1500주, 영산홍·블루베리 각 2000주 등 총 9종 1만4300주를 분양하기로 했다.

시는 익산시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면(내용 삭제) 선착순으로 한 사람에게 나무 3그루, 시화인 국화 화분 1개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관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료 목욕 지원

군산시가 관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목욕권을 배부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목욕권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로 목욕권 지원사업은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조례(2018년 제정)를 근거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1인당 월 1매(5,000원 상당)가 지원된다.

어르신들은 목욕권을 관내 지정된 목욕업소(4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원받게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로목욕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사업 시행과정의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 **NK 프로젝트 N·1**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 **NK프로젝트 N·1**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힐 NK 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리**